

33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hapter

롬 4장, 갈 3장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47장 (주님 한 분 밖에는)

오늘 배울



말씀

1.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압니다.
2.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다음 중 만약 내가 직접 들었다면 가장 믿기 어려울 것 같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네 병이 나으리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오해하곤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로서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칭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믿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약 사백삼십 년 뒤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으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만일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야 한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8)

who, contrary to hope, in hope believed, so that he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what was spoken,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Ro 4:1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창 15:4~6)

(갈 3:6~9)

(히 6:13~1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로마서 4장 17절을 읽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를 살리시고 ()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2. 이러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과 관련하여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자기의 몸이 ()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라의 태도 ()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3. 심지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을 능히 () 가운데서 다시 () 것이다.'
4.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로마서 4장 24절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봅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 가운데서 다시 () 분이다.'
5.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6.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동일한가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보약이 독약이 되려면



100% 보약이
담긴 컵



여기에 독약을
한 방울 넣는다면...



더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의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만 행하고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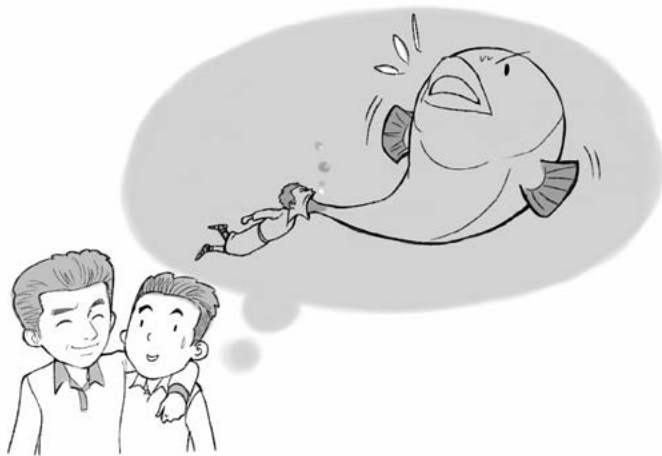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믿으세요? 과학적으로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이야기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그대로 믿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일이 왜 불가능하겠니?”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